

2021학년도 제5회 조남중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 의 록

위원장

학교장

○ 일시: 2021년 9월 28일(화요일) 15:30~

○ 장소: 온라인 회의실(ZOOM)

○ 회 순 1. 개의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 5. 안건심의 6. 폐회

○ 의사일정

- 1 학기중 급식 제공 방법 변경(안)
- 2 학생생활인권규정개정(안)
- 3 2022학년도 특수학급 기본교육과정 교과서 선정(안)
- 4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예 따른 학사일정 변경(안)
- 5 2021학년도 학교회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 개회(간사) : 지금부터 2021학년도 조남중학교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학교장: -인사말씀-

○ 간사: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개의 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 (인사말씀후) 9명의 위원 중 8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 첫 번째 안건으로 학기 중 급식 제공방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부서에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자(000) :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전면 등교시 학기초 준비 기간 및 거리두기 3 4 단계시 조리 배식 식사 시간 단축을 통한 학생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서 대체식 간편식 등 제공 후 점차 일반식으로 단계적인 식사를 제공토록 하고 기타 정상급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대체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이전에 급식 시에는 대체식 제공은 조리원 파업 시 정도로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새로운 불가피한 경우가 좀 더 추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아래 세 가지 경우에 필요시 대체식이나 간편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면 등교시 준비 기간 및 거리두기 4단계로 학생 접촉 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경우, 두번째 교직원의 백신 접종 관련 후유증 대비 시 세번째는 기타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정상 급식이 불가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의 말씀이고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 전면 등교 시 많은 학생이 급식실로 집중될 경우에 혼선을 줄이고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점식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 2주 이내에 대체식이나

간편식으로 급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2주의 시간은 매우 넉넉한 시간인긴 하지만 제 경험상 이보다는 좀 더 짧게 진행하는 것이 학생에게도 유익하고 학생의 적응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미 지난 9월 7일에 저희 갑작스러운 교직원 백신 접종 연기로 인해서 교육부 공문 등을 근거로 학운위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대체식을 한 차례 이미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기타 천재 지변이라 함은 원래 예고 없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조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대체식도 어려울 수 있지만 인근에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체를 이용해서 최대한 학생들에게 완제품으로도 급식을 공급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리원 파업식 급식 대책은 이미 연초에 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000): 혹시 대체식이나 간편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 종류가 어느 것으로 선정이 되는지요?

○제안자(000): 대체식이라 하면 조리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완제품을 구입해서 급식에 제공을 하는데 주로 이제 빵 탄수화물 빵류 그다음에 과일 음료 정도고요, 간편식이라 하면 사실상 정상식과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들이 한 번에 먹기 좋은 일품 요리를 간편식이라고 하는데 간편식을 한다는 것은 일단 조리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고요. 대체식 같은 경우에는 조리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위원(000): 간편식의 예시가 어떤 건지 물으시는거죠?

○제안자(000): 예 간편식은 이제 일품 요리라고 해서 카레라이스 아니면 비빔밥 볶음밥등 밥 한 그릇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밥 국 반찬으로 나눠져 있지 않은.. 그런 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주 수요일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 간편식을 제공하면 보조식으로 뭐 빵이나 과자 혹은 음료 과일 등을 같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간편식은 말 그대로 좀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말합니다.

○위원(000): 지금 코로나 3 4 단계가 지금 계속 장기화돼서 지금 간편식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제공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주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겠죠?

○제안자(000):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불가피한 상황에 이제 만나게 되면 꼭 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심의를 올린 것입니다. 원칙은 자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000): 그런데 평소에 우리 저희 비빔밥이나 카레 먹을 때는 그게 간편식이 아니라 그냥 맛있으라고 나온 거 아닌가요?

○제안자(000): 그렇죠. 간편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상식 중에 특별식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000): 지금 간편식이라는 건 순수 그것만 내놓을 때 간편식이지 다른 거 이것저것 놓는다면 그

건 간편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안자(000): 네 맞습니다. 이게 특별식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워낙 간편하게 먹고 한 그릇에 이렇게 먹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수요일에는 간편식 같은 특별식을 제공합니다.

○위원(000): 저희 학교는 일단 학생 수가 저희 학교가 처음 24학급이었는데 지금 특수학급까지 하면 28학급입니다. 저희 급식실에 비해서 인원이 많아서 참 힘들게 급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유롭지 않아서 조리원님들이 사실은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 전면 등교를 하면은 지금 점심시간 안에 전체 학생이 다 먹을 수 있을까.. 그걸 지금 못 할 상황 같아요. 3교시 끝나고 2트랙으로 하든지 아니면 교실로 올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2트랙으로 하면 지금 상태로 하면 점심시간이 없는 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표를 다시 짜야 되는 상황, 그리고 또 쉬는 시간에 담임이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거예요. 그리고 급식실도 크지 않고 지금 인원이 작년 올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예전 인원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 늘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등교가 별로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전면 등교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11월에 될지 12월에 될지 전면 등교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다시 방법을 찾아야 되고 내년되면은 4학급이 늘어요. 학생 수가 4학급이라는 것은 120명 정도가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도 교육청에서도 뾰족한 답이 없어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000학교하고 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또 학부모님들 생각하고 다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 학교는 학생수가 넘치는 학교가 되는 겁니다.

○위원(000): 지금 교실이 단축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저기 시간이 줄었잖아요. 수업 시간이..

○위원(000): 네. 이번 주까지입니다.

○위원(000): 네, 그 이후에도 바뀌나요?

○위원(000): 네 10월 달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가고요. 저희가 원래 8월 말에 백신 접종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9월달로 이게 바뀌면서 저희가 개학하고 수업 일정이랑 맞물리면서 선생님들이 2차 백신 이후에 아파서 병가 내시는 분 그다음에 메스껍고 이런 것 때문에 오후 일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3일 동안에 저희 거의 80명 되시는 교직원들이 다 맞았거든요. 급식도 문제가 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학생들 수업은 진행하되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다가 40분 수업으로 당긴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안내를 10월달까지 나갔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에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45분 수업으로 환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가정통신문에 이번 주까지 이미 안내가 되어 있어서 자꾸 변경하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혼란이 될까 봐 이번 주까지는 40분으로 단축 수업을 하고요. 이제 내일이면 또 10월 등교 일정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월 달부터는 시작해서 다시 원상태로 45분 수업으로 이제 환원이 될 겁니다. 다행히 저희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있었지만 학사 일정을 운영하는 데 큰 공백이 생길 만큼 무리하게 막 아프신 분들은 정말 다행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리고 몸이 안 좋으셔도 어찌 됐든 나와서 수업은 다 하시고 그다음에 조퇴를 하든가 막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이었죠. 선생님들께서 별 무리 없고 그다음에 조리 실무사님들도 그렇게 크게 아프신 분들이 없어서 학생 급식이라든가 수업 진행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 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첫 번째 안건인 학기 중 급식 제공 방법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학교생활 인권 규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부서에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000) : 네. 안녕하세요 저 학생안전부장 000입니다. 이번 학생 생활인권규정 개정에 대해서 안건을 제안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1학기 때도 한번 규정을 개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과 시흥교육청에서 단위 학교인권규정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4월 5월 6월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1학기 때 이제 개정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컨설팅을 했는데 거기서 또 몇 개의 또 수정이나 삭제 사항들 권고 사항이 와서 개학 이후에 규정개정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를 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가 되겠는데요. 신규 대조표를 보고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3장 12조에 3항에 권고 사항으로 온 게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실제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전용 의견 게시판이 있습니다만 문구에 빠져 있어서 이 내용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제4장 학생자치회 회칙에 보면 기존에 우리 학교 규정에 보면 네모 박스에 근거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써 있었는데요. 이 표 자체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의무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해마다 개정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특별히 있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5장 학생 용의복장에 보면 1조 5항에 보면 동절기에는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라고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동절기 아닐 때는 외투를 착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동절기를 빼고 그냥 날씨가 추울 때 교복 위에 방한용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수정을 내용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선택의 폭을 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네 번째 징계 종류에 보면 훈육 훈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권고 사항에 훈육이나 훈계라는 용어를 쓰거나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권고 내용이 있어서 우리 학교 규정에서도 징계 종류에 훈육 훈계가 있는 것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7장 15조입니다. 역시 생활 교육의 방법에 보면 훈육 훈계 해가지고 경미한 사안은 훈계 조치한다 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훈육 훈계에 대한 내용은 전체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훈육 훈계 말고 나머지 이외의 것들은 그대로 내용이 살아 있는 겁니다. 근데 단 훈육이나 훈계라고 돼 있는 내용만 삭제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위원(000): 아니 그런데 이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건이 아닌 거지 학생들이 언행이 불순한 학생 지도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해석을 하게 만드네요.

○제안자(000) : 그게 아니구요. 평상시에는 학생들 지나가는데 뭐 잘못된 게 있으면 훈계 할 수 있는데 그 문구에 생활교육위원회에 훈육이나 훈계가 들어가 있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생활교육위원회를 했으면 최소한 그러니까 학교 봉사가 되겠죠, 훈육 훈계는 없어진 겁니다.

○위원(000): 그러니까 훈육 훈계에 해당하는 것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제안자(000) : 예 생활교육위원회의 회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생활교육위원회에는 훈육이나 훈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훈계에 대한 내용만 다 삭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용어 자체가 요즘시대에 사용 하는 게 맞지 않다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또 16조에 보면 기준표가 있어요. 기준표에도 보면 맨 앞에 있는 훈육 훈계에 대한 내용들은 전체 한 줄이 다 새로로 한 줄이 다 삭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000): 그 표현 대신 교육이란 말을 쓰라 이 소리 아니에요?

○제안자(000) : 예 훈육. 훈계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처분 내릴 때 학생한테 처분을 줄 때 훈육이나 훈계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7장 18조에 보면 이의 제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학교에서 조금 이제 누락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교육위원회했을 때 이의 제기할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한데 그 내용이 우리 학교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행정심판 관련된 내용과 행정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일 등에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에 기존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로 넣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역시 생활교육위원회 관련된 건데 학부모한테 통보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통보는 하는데 서면으로 통보한다라는 내용이 누락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안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이후는 이제 지금 기존에 있던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가로 서면으로 통보한다라는 내용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8가지가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기타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000): 그럼 저희 학교 학생 교내 학생 중에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 저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안자(000) : 이런 일이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위원(000): 교내에서 불량한 일을 하거나 흡연이나 이런 조치로 발각이 되거나 했을때요.

○제안자(000) : 지금 생활교육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여쭙보는 거죠? 생활교육위원회에 해당되는 사안들은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 또 아니면 밖에서 어떠한 경찰과 관련된 그런 사고를 쳤을 때도 그렇고 또 수업을 많이 빠지는 학생들 학교 생활 태도가 되게 불순한 학생들 이런 대상 학생들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 학생으로 하여금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그 학생이 이제 사실 확인서 같은 거를 쓴 걸 토대로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제 학부모님한테 통보하고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생활교육위원회는 교내에 있는 선생님들로만 위원이 구성돼 있고요. 그래서 학교 자체 내에서 학생을 이제 교육 지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최한 이후에 처분이 나오는데 처분은 교내 봉사나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이렇게 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역시 처분 내려진 결과를 학생과 보호자한테 통보하고 그다음에 교내 봉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내에서 담당 선생님이 지도를 학생들을 하면서 이제 실시가 되겠고 그 이외에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은 이제 외부 기관에서 조치를 이행하고 수료를 해서 와야 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위원(000): 여기에서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안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거는 어떤건가요?

○제안자(000): 우편으로 발송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화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생활교육위원회를 합니다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도 전달을 하죠. 그런데보면 전화 통화나 이렇게 분명히 했는데 날짜를 알려드렸는데 나중에 우리 연락 못 받아서 참석 못했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 필요한 거는 아닌데 우리 절차상 그렇게 좀 하는 게 나중에 혹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근거가 남기 위해서 우리는 통보를 했고 보호자는 등기로 받았으니까 확인이 된거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면으로 통보하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000): 교복 위에 방한용 외투 착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혹시 색상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을까요?

○제안자(000) : 지금 색상은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마 우리 규정안에는 없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학생 지도 방안 안에 가급적 형광색이나 이런 걸 좀 피하도록 이렇게 지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000): 그럼 검정 색만 되는 게 아니라 흰색이나 회색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제안자(000) : 규정에 색상 제한은 없습니다. 또 겨울철이 아닐 때에도 날씨가 되게 춥거나 아니면 감기가 걸려서 몸살이 있는 애들은 여름에도 입을 수 물론 있겠죠. 그래서 규정상 못 입게 할 수는 없는데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단 반드시 교복 위에 입어야 돼요. 왜그러냐면 애들이 외투를 한 번 이렇게 허용하면은 외투를 입으면 속에 교복을 입었는지 사복을 입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애네들이 실내에 들어와서 등교할 때는 외투를 이렇게 올리고 오니까 속에 당연히 교복을 입은 걸로 알지만 교내에 들어와서 실내에서 움직일 때 이 외투를 벗어버리면 사복으로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애가 우리 학교 학생인지 외부인이 들어온 건지도 사실 물론 애들하고 섞여 있으면 학생인 줄 알겠지만 혼자 이렇게 지나가면 교내에서도 외부인이 잠깐 왔다가는지도 이게 확인하기도 어렵고 해서 반드시 교복을 입고 그래도 추우면 외투를 이렇게 입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간혹 학생들이 사복을 입고 싶어서 그걸 조금 악용한다고 하나요. 하교길에 외투 같은 거를 허용하면 속에 사복을 입고 와서 벗거나 하면은 학생인지 알수가 없고 교복이 아니니까 학생들 행동에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규정에는 언제 언제 입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넣어놓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생활 지도 내용에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교복을 입고 기본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정말 추울 때는 교복구에 뭘 더 겹쳐 입어도 되고 색상 제한은 없고 이렇게 됩니다.

○위원(000): 교복이 겨울에 자켓은 꼭 안 입어도 되는 거죠?

○제안자(000) : 예, 교복 춘추복이나 조끼까지 입고 이제 자켓이 불편하니까 집업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복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사실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되게 좀 예민하기도 하고 힘듭니다. 사실 학생들을 좀 안전하게 교육적인 입장에서 지도하기 위해선 그 어떠한 제재도 조금은 필요한데 그걸 또 너무 제재하다 보면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또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좀 어렵기도 한데 최대한 융통성은 발휘하는데 교육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애들한테 많이 허용을 못해주고 있어요. 사실 안전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위원(000):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겉옷 외투에 대한 색깔은 규정이 남색 검정 이런 게 있었다가 어두운 색으로 또 개정이 됐다가 흰색도 있고 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아마 지금은 색깔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제안자(000) : 그게 인권위에서 총체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그게 색상에 대한 제한을 없앴습니다.

스타킹 색깔도 전에는 각 학교마다 보면 단위 학교에서 스타킹은 빨간 스타킹 신고 노란 스타킹 신을까 봐 살구색이나 살색으로 한대라고 돼 있는 학교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인권위에서 권고로 내려오는 게 색상 제안을 하지 말라고 하니 교육청 입장도 그렇고 단위 학교에서도 그렇고 정말 애매합니다.

○위원(000): 요즘은 아이들의 인권이 너무 중요시 여겨서 많이 힘든 것 같은데요.

○제안자(000) : 기본은 교복을 입는 게 제일 기본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춥거나 했을 때 더 입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해하면 좋는데 자꾸 멋내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또 밖에 나가서 또 학생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000): 체육복 안에 네 체육복을 입잖아요. 겹옷을 입잖아요. 그럼 속 안에 뭘 입었는지 체육복 반팔을 입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규제는 안 하시는 건가요?

○제안자(000) : 그것도 다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애들 체육 활동할 때는 속에 단추 달린 옷 입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동복 체육복을 입을 때 속에 편한 면티 같은 걸 입고 동복 체육복을 입고 활동하면 너무 좋을텐데 문제는 학생들이 동복 체육복을 입고 와서 이걸 벗었을 때 좀 멋 부리려고 속에다가 멋있는 옷 입고 예쁜 티 입고 체육복 입고 온 것처럼 하고 학교에 오면 실내에 오면 이걸 벗고 다녀버려요. 그리고 사복을 입고 그러니까 다니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복 체육복 속에 하복.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입어라.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좀 실제로 좀 편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면티 같은 거 허용해주고 싶는데 해주고 싶는데 애들이 실내에서는 위에 사복 입고 다니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000): 예전보다는 많이 느슨해지셨다고 애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안자(000) : 근데 일일이 선생님들이 일일이 체육복 속에 뭐 입었는지 자꾸 내려보라고 할시간도 없지만 검사도 못해요.

○위원(000): 등교할 때 교문만 통과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던데요.

○위원(000): 그게 이제 예전이랑 다른 게 지금은 더 우선시 되는 게 이제 방역 지침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고 마스크 지도하고 하다 보면 학생들 많이 돌아다니고 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을 5분으로 단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옷까지 검사할 만한 시간이나 여력이 없고요. 그렇다고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정말 눈에 띄는 거 아닌데 너 안에 뭐 입었니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느슨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저희는 일단은 거리두기 마스크 손 소독 이게 더 중요하다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학생들이 느끼기에 체감하기에 그런 거지 규정이 막 바뀌었다거나 선생님들이 안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봐준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일단은 아까 학생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하게 해주고 싶지만 그걸 또 이용을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웬만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안에다가 체육복이나 생활복으로 이렇게 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풀어놔주면 학생들한테 위화감 조성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학교에서는 이런저런 거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권 규정에는 없으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그래도 안에 동복 체육복 안에다가는 생활복이나 하복 체육복을 입어라라고 이렇게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예요. 이런상황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부모님들께도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단순히 못 입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두 번째 안건인 학생 생활 인권 규정 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 번째 안건으로 세 번째 안건으로 2022학년도 특수학급 기본 교육과정 교과서 선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부서에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000) : 네 안녕하세요 특수 교사 000입니다 이 심의한 안건을 제안한 이유는 이제 2021학년도 특수학급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형 도서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기본 교육 과정이라 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고 이 학생들의 장애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교

육과정을 말합니다. 이제 교과용 도서로 선정받고자 하는 도서명은 국어 수학 진로와 직업입니다. 이 교과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개별화 교육지원팀 협의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과목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선정 교과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수 교육 기본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는 국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협의회가 불필요하고 저자는 교육부 발행처는 미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용 도서는 학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교과용 도서입니다. 그리고 이 도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때 활용하게 되며 학생들의 수준이나 그리고 장애 특성에 따라서 재구성을 통해서 이 교과형 구성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세 번째 안건인 2022학년도 특수학급 기본 교육과정 교과서 선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네 번째 안건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학사 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부서에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000): 네. 안녕하십니까. 조남중학교 교무기획부장 000입니다. 저희가 4차 학운위 때 이미 제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 졸업 때까지 5일의 대체 공휴일이 생김으로 학사 일정을 조정해야 된다고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반 공휴일이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일반 대체공휴일과 상관없이 관공서에서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만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지난번에 저희 심의 완료했었던 성탄절 다음에 대체공휴일과 1월 1일 신정 다음에 대체공휴일이 일반 저희 학사 일정에는 수업일로 변경됨에 따라 2차적으로 학사 일정이 수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의 공문에 의거해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대체 공휴일을 반영하여 2021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을 수정합니다. 표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기 기준 대체 공휴일 3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것으로 인해서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복절은 저희 여름방학에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과 상관이 없고요. 10월 3일 개천절의 대체 공휴일인 10월 4일 한글날의 대체 공휴일은 10월 11일 인 이틀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학사 일정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두 장 넘기시면요 2021학년도 21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그렇게 많이 변동되지는 않았는데요. 수업 시수 관련해서 조금 요일 변경에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날 금요일이지만 월요일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12월 14일 날 역시 화요일이지만 월요일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5일에는 사정회를 하면서 역시 금요일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것은 뭐가 있냐면 2022년 1월에는 저희가 졸업 및 종업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기록 및 마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학 전에 저희가 생기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수와 저희가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을 12월에 거의 다 마무리를 짓고요. 1월부터는 1월에는 오전 수업 4교시까지만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 급식을 실시한 후에 하교시키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중간에 어떤 학사 일정이 변동이 되어지면 오후 수업이 또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학기에 학사 일정에 근거한 2학기 수업 시수 현황을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고 한 학기에 한시간 1단위 수업을 하게 되면 17시간이 확보가 되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17시간 수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과 모든 과정이 17시간을 일단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수업 시수를 전부 다 마쳤고요. 그리고 주요 행사들을 표시해 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학기 학사 운영 일정 수정 2차 발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000): 저희 이번에 영어 듣기 평가는 그냥 영어 시쓰기 그 대회로 대체가 된 건가요.

○제안자(000): 대체가 된 게 아니고요. 영어 듣기 평가는 1학기 때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어 등교 일정도 계속 들쭉날쭉 바뀔어야 되구요. 주변에서도 영어 듣기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수행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학기 저희 평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수행평가에 넣지 않은 대신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자신의 실력을 좀 체크하는 이런 시간으로 갖자라고 해서 그렇게 된거구요. 그래서 영어 듣기 평가를 그날 실시하지 않았고요. 등교하는 날 영어 수업 시간에 각 교과 선생님들께 그래서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시험지 나눠주면서 각자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시행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좀 아쉬워 하긴 했어요. 생각보다 이번에 조금 듣기 평가가 쉽게 나와서 수행평가 넣었으면 좋은 점수 받았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학사 일정 진행 운영상 이게 하루씩 또 학생들이 등교를 또 하기도 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 1학기 때 기억하시기 중간에 잡음이 섞여서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굳이 이 듣기 평가를 수행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듣기에 관련된 관심만 충족시켜주면 관심과 욕구만 충족시켜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영어 선생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수업 시간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고요. 어차피 대학 갈 때까지 영어 듣기 평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듣기에 관련되어진 활동이나 훈련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네 번째 안건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학사 일정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섯 번째 안건으로 2021학년도 학교회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부서에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000) : 교육행정실장 000입니다. 이번 4차 추경 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기본 운영비 감액 그리고 목적 사업비 감액, 지원금 및 수익자 부담 경비 감액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변경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이 조금 취소되거나 아니면 축소되다 보니까 이 금액들 예산을 세웠던 금액들을 좀 감액하게 됐습니다. 일단 기본운영비 감액은요 저희가 자체 예산하고 기본 운영감액은 저희가 이제 학교 시설 대여에 대한 사용료의 예산을 올린 해 이제 사용 허가를 안 하다 보니까 세웠던 예산들 이제 전액 감액을 했구요. 그것도 이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자에 대한 부분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 사업 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업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급식 경비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 사업비 감액도 있었구요. 수익자 부담 경비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교직원 급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9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요. 이번 추경 예산안은 15억 6천3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세출 부분은 이제 저희가 크게 감액된 부분들이 사무용품이라든가 이제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 이제 좀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 행사들은 1학기 때 좀 조정을 했지만 2학기 때 좀 많은 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하고 좀 예산을 했다가 예산을 세워놨다가 좀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 관련 행사들도 감액 취소하고 좀 축소하다 보니까 감액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대신 이제 교재 교구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교육 지도에 필요한 물품들 구입하는 거에서는 좀 감액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000): 네 저는 여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자유학기제 관련인데요. 1학년 자유학기제 과학에 대한 교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책을 구입을 못하고 그 내용을 스캔 떠 가지고 아이들한테 올려주고 프린트에 직접 해서 보는 걸로 대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이 있어서 아이는 그걸 프린트해서 그걸 읽어보는데 그게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수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수업이 되면 그 책을 구매를 전체적으로 해서 그 반이 다 보고 또 다른 반도 그 책으로 동일 수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그건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교재를 도서관도 책을 구입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수업에 관련된 부분의 교재라고 하면 구입을 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자(000)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 반영하도록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000)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자유학기 예산에서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자유학기 수업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예산이 올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반 31명한테 전체 똑같은 책 책을 사주고 아이들이 그걸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거였는데 선생님이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그걸 프린트를 만들어가지고 워드를 쳐서 나눠줘서 그걸 공부해오고 이렇게 하고도 했는데 과학관련책이라 책이 좀 비싼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각 프로그램마다 적당한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31명을 모두 똑같은 책을 사주게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담당 선생님께서 프린트를 해서 되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위원(000): 근데 이게 이번 학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다음에 자유학기 때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나요?

○위원(000) : 저희가 자유학기 프로그램 주제 선택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고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해마다 시수에 따라 좀 바뀌시거든요. 그래서 과학과에서도 지금 과학 선생님이 여섯 분이 계신데 그분만 그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처럼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는 교재는 아닙니다.

○위원(000): 근데 이게 학교도서관에도 없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원(000) : 우리가 이렇게 좋은 책이 있으면 학교 도서관에 이제 도서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살 수는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도서관에서도 그렇게 31권을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위원(000): 31권이 아니더라도 도서관에 몇 권이라도 비치기 되면 아이들이 빌려보고 수업에 참여를 하는데 그것도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요.

○위원(000) : 그래서 도서관에서 2학기 때 저희 도서 주문 받을 때 그걸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아마 그렇게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000) : 그러면 나중에 혹시 자유학기 관련해서 지금 같이 과학 도서가 필요한 경우는 미리 도서관에서 주문을 요청하잖아요. 그때 미리 알고서 요청을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아마 그렇기도 하고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프린트해서 쓰면 되겠다는 게 취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거예요.

○위원(000): 네 프린트하기에는 양이 많았어요. 저도 이제 한 10페이지 이내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서 이 정도 양이면 당연히 교재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000) : 다음에는 참고해서 한 번씩 안내를 미리 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도서 살 수 있는 돈은 아직 이렇게 오픈된 내용은 아니예요.. 앞으로 이제 올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제가 미리 혹시 오게 되면은 신청을 해 보세요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아쉬운말씀 잘해주셨구요.다음에 참고를 해야겠네요.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다섯 번째 안건인 2021학년도 학교회계 제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조남중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석인원	학부모위원	000, 000, 000, 000 (4명)	
	지역위원	000 (1명)	
	교원위원	000, 000, 000 (3명)	총8명 참석